VOL.4

북시티

BOOK CITY

산책자의 겨울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제

출판도시어린이집에서의 나날

절제의 깊이

최병훈 작가는 동양의 노장사상으로 시작되는 무위자연과 선禪 사상의 절제미를 동서양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키며, 사유와 명상을 통해 자기성찰의 세계로 향하도록 한다. 그의 작품은 내면의 깊이를 찾으며 마음을 비워나가는 자기성찰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드러냄의 얕음' 보다 '절제의 깊이'를 찾아가는 자기성찰의 명상적인 오브제이다.

선비의 길(Scholar's Way) © Bae, Bien-U

"나는 외부 세계의 시끄러운 소음보다 자아성찰을 선택한다."

내면의 침묵을 향한 그의 여정은 작가 혼자만의 것으로 남지 않는다. 그의 작품은 관객이 스스로 사물의 흔적과 침묵을 사유하는 선禪의 실재적 공간을 창조하게 함으로써, 작가가 말하는 '세계의 보편적 가치'를 더불어 성찰하고자 한다. 극도의 절제를 통해 관객들이 자신들의 내적 존재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잔상(Afterimage) © Bae, Bien-U

태초의 잔상(Afterimage of beginning)

최병훈 _ 아트 퍼니처 작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과 동 산업미술대학원을 졸업하고, 장르의 경계를 극복하며 국내 '아트 퍼니처' 분야를 개척한 선구자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외 23회 개인전을 열었으며,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휴스턴 미술관, 파리 장식 미술관,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 홍콩 M+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 등 국내외 유수 미술관들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현재 뉴욕 프리드만 벤다 갤러리와 파리 다운타운 갤러리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그의 작품 역량을 넓혀가고 있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와 학장을 역임하고 2016년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하였다. 최병훈 작가는 파주출판도시에서 아뜰리에 초이를 운영하고 있다.